

# '우한 폐렴' 하늘길 막는다, 오늘부터 인천-우한 항공 노선 중단

기사입력 2020-01-23 17:22 최종수정 2020-01-23 17:30

대한항공 등 중국 우한행 운항 중단  
중국 내 의심환자 항공권 변경 요청  
김현미장관 "검역 신경 써달라" 당부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우한간 국제 항공 노선 운항이 23일부터 중단됐다. 사진은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비행기.  
[연합뉴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간의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중단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우한 폐렴'을 막기 위해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한국을 연결하는 국제 항공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한은 폐렴 확진자가 늘면서 도시 전체가 봉쇄됐다. 중국 정부는 우한을 떠나는 항공편은 물론 기차, 장거리 버스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인천~우한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이 있다. 그동안 주당 4회씩 운항 중이었던 노선 모두 23일부터 중단됐다. 지난 21일 첫 운항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도 '우한 폐렴'으로 운항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부는 우한뿐 아니라 중국~한국 간 항공노선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취항 중인 항공사에 대해 의심환자 등 격리대상자와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을 요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도 조치했다”며 “폐렴의 국내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 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 폐렴 대비 공항 방역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국내 추가 유입에 대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출입국 현장 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검역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24시간 대응체계에 나선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소독살균을 주 3회로 확대했다. 특히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여행객 접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에탄올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 ▶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 먼지알지!
-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